<h1>나 혼자만 레벨업-28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j58121e446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8화</p>  
<p>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상자의 크기가 낯익었기 때문이다.</p>  
<p>상자를 뜯는 손길이 빨라졌다.</p>  
<p>'역시!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상자 안엔 황금빛 열쇠가 들어 있었다.</p>  
<p>애타게 기다리던 인던의 열쇠였다.</p>  
<p>곧 열쇠에 대한 정보가 떴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아이템: 악마성의 열쇠]</p>  
<p>입수 난이도: S급</p>  
<p>종류: 열쇠</p>  
<p>'던전: 악마성'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. 송파구 대성 타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/p>  
<p>"S급?"</p>  
<p>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.</p>  
<p>물론 입수 난이도가 곧 던전 난이도를 뜻한다는 보장은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전혀 별개로 보이지도 않았다.</p>  
<p>E급 열쇠로 들어갔던 인던은 E급 게이트의 던전만큼이나 쉬웠으니까. 그런데 만일 던전의 난이도가 S급이라면?</p>  
<p>S급 헌터들이 팀을 이뤄 공략해도 클리어할 수 있을지, 없을지 가늠이 불가능했다.</p>  
<p>확률은 50 대 50?</p>  
<p>B급 이상의 게이트부터는 난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다, 전 세계를 통틀어 S급 게이트가 열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.</p>  
<p>'그중 하나가 제주도에 열렸었지.'</p>  
<p>그 이후로 제주도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,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다.</p>  
<p>진우는 손에 들린 열쇠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'이게 내가 원하던 거라고?'</p>  
<p>한 가지 다행인 점은 '이동'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던 저번 열쇠와는 달리 이번 열쇠는 '출입'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.</p>  
<p>언제든 도망칠 수 있다는 거다.</p>  
<p>그리고 만약 열쇠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아직 창고에 쓰지 않은 귀환석이 하나 남아 있었다.</p>  
<p>전처럼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히게 될 염려는 없었다.</p>  
<p>'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지.'</p>  
<p>이 열쇠가 정말로 원하던 것이 맞는지 두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.</p>  
<p>2.악마성</p>  
<p>대성 타워 앞.</p>  
<p>무려 백 층이나 되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 있었다.</p>  
<p>그야말로 마천루.</p>  
<p>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진다.</p>  
<p>밤이라 그런지 행인은 적었다.</p>  
<p>인적 없는 거리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.</p>  
<p>'그래도 혹시 모르니...'</p>  
<p>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다 윗옷에 달린 후드를 푹 눌러썼다.</p>  
<p>게이트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사라지고 나타나면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.</p>  
<p>더욱이 주변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.</p>  
<p>마침 진우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다.</p>  
<p>'웬 놈이지?'</p>  
<p>오밤중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건물 주변을 서성거리는 놈이라니.</p>  
<p>빌딩 안에서 지켜보던 경비원이 진우를 수상히 여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그런데 문 쪽으로 걸어가던 경비가 우뚝 멈춰 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아, 아니?"</p>  
<p>경비가 놀라 뛰쳐나왔다.</p>  
<p>분명 이쪽으로 걸어오던 남자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이다.</p>  
<p>감쪽같이.</p>  
<p>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.</p>  
<p>경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다.</p>  
<p>"거참...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."</p>  
<p>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경비가 옆에서 뭔가 희끗희끗한 것을 발견하고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"으, 으악!"</p>  
<p>기겁한 그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었다.</p>  
<p>"이, 이게 뭐시여!"</p>  
<p>경비가 창백한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.</p>  
<p>공중에 떠 있던 사람 손은 이내 허공으로 사라졌다.</p>  
<p>진우는 뻗었던 손을 도로 빼냈다.</p>  
<p>'바깥과 연결되어 있다.'</p>  
<p>저번처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지 않았다.</p>  
<p>열쇠도 사라지지 않고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다. 원한다면 언제라도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.</p>  
<p>'퇴로 확보는 끝났고...'</p>  
<p>열쇠의 입수 난이도가 난이도인지라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.</p>  
<p>진우는 후드를 벗고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신음이 흘러나올 것 같은 광경이었다.</p>  
<p>방금 전 대성 타워 방향으로 몇 걸음을 내디뎠을 때 눈앞의 세계가 순식간에 변했다.</p>  
<p>이걸 던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?</p>  
<p>앞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.</p>  
<p>사라진 대성 타워 대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탑이 있었다.</p>  
<p>'탑이라고 해야 할지, 성이라고 해야 할지.'</p>  
<p>하늘로 끝없이 뻗어 있는 탑은 검붉은 불꽃에 휩싸여 있었다.</p>  
<p>불이 난 것이 아니라 탑이 불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.</p>  
<p>"불타는 탑."</p>  
<p>악마성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명칭이 더 어울리는 곳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화르르륵!</p>  
<p>가까이 다가갈수록 불꽃이 요동치는 소리가 요란했다.</p>  
<p>'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까?'</p>  
<p>들어가고 나서도 문제다.</p>  
<p>지하철역을 베이스로 생성됐던 저번 던전처럼 이번 던전도 대성 타워가 기반이라면 백 층을 올라가야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.</p>  
<p>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.</p>  
<p>'음?'</p>  
<p>진우는 걸음을 멈췄다.</p>  
<p>문 근처에서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.</p>  
<p>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니 문 앞 구석에 황소만 한 검은 짐승이 몸을 동그랗게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조심스럽게 카사카의 독니를 불러왔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아이템: 카사카의 독니]</p>  
<p>입수 난이도: C</p>  
<p>종류: 단검</p>  
<p>공격력 +25</p>  
<p>카사카의 독니로 만든 단검입니다. 카사카의 독이 남아 있어 공격 시 마비, 출혈 효과를 부여합니다. 인벤토리에 보관하시거나 상점에 파실 수 있습니다.</p>  
<p>효과 '마비': 공격받은 대상이 일정 확률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.</p>  
<p>효과 '출혈': 공격받은 대상의 체력이 1초에 1%씩 소모됩니다.</p>  
<p>자체 공격력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, 특수 효과의 힘은 실전을 통해 입증됐다.</p>  
<p>'마비 효과로 쉽게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.'</p>  
<p>진우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.</p>  
<p>그리고 천천히 놈을 향해 다가갔다.</p>  
<p>그러나 몬스터의 후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. 곧 짐승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'쳇.'</p>  
<p>진우가 혀를 찼다.</p>  
<p>완전히 일어난 놈은 세 개의 머리를 일제히 진우 쪽으로 돌렸다.</p>  
<p>[지옥의 수문장 켈베로스]</p>  
<p>세 개의 머리를 가진 커다란 개.</p>  
<p>개 머리 위에 적힌 붉은 이름이 눈길을 끌었다.</p>  
<p>몬스터의 레벨이 높다는 증거였다.</p>  
<p>'붉은색이라면 페널티 존에서 봤었던 거대 지네와 같은 급인가?'</p>  
<p>그때는 지네에게서 도망치느라 급급했다.</p>  
<p>고작 1레벨에 불과했으니까.</p>  
<p>'하지만 지금은 다르다.'</p>  
<p>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.</p>  
<p>놈은 분명 강하겠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느낌은 없었다.</p>  
<p>날 선 감각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주고 있었다.</p>  
<p>감각 스탯을 괜히 높인 게 아니다. 싸워야 할 것인가, 피해야 할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 왔었다.</p>  
<p>"크르르르륵!"</p>  
<p>켈베로스가 적을 인식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을 시작했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놈의 꼬리 쪽을 슬쩍 곁눈질했다.</p>  
<p>채찍같이 기다란 꼬리 끝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. 진우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.</p>  
<p>'이빨과 꼬리.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공격 패턴이다.'</p>  
<p>진우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천천히 거리를 좁혀 오던 켈베로스가 코앞에 멈춰 서더니 눈치를 살폈다.</p>  
<p>'빈틈을... 찾는 건가?'</p>  
<p>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.</p>  
<p>놈이 덤벼들었다.</p>  
<p>"컹!"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빠르다!'</p>  
<p>진우는 뛰어오른 켈베로스의 밑으로 슬라이딩하듯 미끄러지며 이빨을 피했다.</p>  
<p>땅에 착지한 켈베로스가 곧바로 돌아서서 세 개의 주둥이를 들이댔다.</p>  
<p>"컹, 컹컹!"</p>  
<p>주둥이 사이로 날카로운 이빨들이 빛났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'칭호: 늑대 학살자' 버프 효과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칭호: 늑대 학살자]</p>  
<p>늑대를 잡는 데 능숙한 사냥꾼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. 짐승형 몬스터를 상대할 때 모든 능력치가 40% 증가합니다.</p>  
<p>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다.</p>  
<p>'좋아!'</p>  
<p>진우는 자꾸 엉겨 붙으려는 켈베로스를 피해 뒷걸음질 치며 단검을 휘둘렀다.</p>  
<p>쉭, 쉭, 쉬익. 쉭!</p>  
<p>캉! 캉캉! 캉!</p>  
<p>단검과 이빨이 부딪치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. 단검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, 그저 켈베로스의 공격을 막아 내는 데 불과한 수준이었다.</p>  
<p>'버프를 받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니!'</p>  
<p>켈베로스의 민첩함이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살기 스킬을 사용했다.</p>  
<p>[스킬: '살기'를 시전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저항력이 높아 효과가 취소되었습니다.]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통하지 않아?'</p>  
<p>그때 켈베로스의 긴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왔다.</p>  
<p>쉬이이익.</p>  
<p>진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꼬리를 피했다.</p>  
<p>하지만 그 탓에 쉴 새없이 움직이던 다리가 멈추고 말았다. 그리고 켈베로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.</p>  
<p>켈베로스의 머리 하나가 진우의 왼쪽 어깨를 덥석 물었다.</p>  
<p>"으아아악!"</p>  
<p>진우는 있는 힘껏 놈의 미간을 단검으로 찍었다.</p>  
<p>푹!</p>  
<p>['효과: 마비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저항력이 높아 효과가 취소되었습니다.]</p>  
<p>['효과: 출혈'이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저항력이 높아 효과가 취소되었습니다.]</p>  
<p>"깨개갱!"</p>  
<p>켈베로스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.</p>  
<p>다행히 다른 머리가 붙기 전에 떨쳐 내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이미 왼쪽 어깨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.</p>  
<p>무시무시한 치악력이었다.</p>  
<p>왼팔에 힘을 줘 보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켈베로스에게도 약간의 데미지를 남겼지만 피해의 정도로만 따지자면 이쪽이 훨씬 심각했다.</p>  
<p>'마비나 출혈이 먹혔다면 양상이 달랐을 텐데...'</p>  
<p>진우가 켈베로스를 노려보며 혀끝을 찼다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'어?'</p>  
<p>켈베로스의 눈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.</p>  
<p>"크르르르륵."</p>  
<p>갑자기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[지옥의 수문장 켈레보스가 스킬:'분노'를 사용합니다.]</p>  
<p>[3분간 분노 상태가 지속됩니다.]</p>  
<p>[켈베로스의 모든 능력치가 2배 증가합니다.]</p>  
<p>[켈베로스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.]</p>  
<p>진우가 소리를 질렀다.</p>  
<p>"뭐라고?"</p>  
<p>마수, 아니 몬스터가 스킬이라니!</p>  
<p>순간 켈베로스가 바닥을 박찼다.</p>  
<p>'제길!'</p>  
<p>미처 반응하기도 켈베로스가 눈앞에 나타났다.</p>  
<p>급하게 단검을 휘둘렀으나 놈의 머리를 살짝 스쳤을 뿐이었다.</p>  
<p>세 개의 주둥이가 동시에 진우를 물었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"으으윽!"</p>  
<p>진우는 이를 악물었다.</p>  
<p>목과 옆구리, 허벅지를 동시에 당했다.</p>  
<p>켈베로스는 전속력으로 달려가 진우를 성문에 처박았다.</p>  
<p>쾅!</p>  
<p>진우의 체력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.</p>  
<p>"커헉!"</p>  
<p>[체력: 411/3,602]</p>  
<p>띠링!</p>  
<p>[체력이 30% 이하가 되어 스킬:'근성'이 발동됩니다.]</p>  
<p>[받는 피해가 50% 감소합니다.]</p>  
<p>다행히 물리 데미지 감소와 근성 패시브 덕분에 즉사는 면할 수 있었다.</p>  
<p>"크으..."</p>  
<p>진우가 눈을 부릅떴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